

세계한인비즈 마무리... 전북, 대박 터트렸다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가 대규모 수출계약 체결을 비롯 관람객, 흥행에 성공을 거두며 24일 폐회식을 끝으로 2박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세계 각국의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이 한류의 본고장 전북에서 한데 모여 글로벌 비즈니스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는 장으로 전북자치도의 도시브랜드 제고, 개최 능력, 도내 기업들의 성장 등 다양한 경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 행사여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이번 대회는 전 세계 한인 기업인들로부터 즉각적인 수출 성과를 이끌어내며, 참가 기업들 간의 실질적인 비즈니스 매칭이 연이어 성사됐다.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의 한인 경제권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됐으며, 전북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평가된다.

▲수출계약 5,800만 달러·상당실적·관람객도 역대급

24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2일부터 24일까지 전북대학교 일원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비즈니스대회 5,600만달러, JB페어 200만 달러 등 총 5,800만 달러(22일 4개 기업 600만 달러·23일 6개 기업 200만 달러·24일 1개 기업 5,000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지난해 미국 애너하임에서 열린 제21차 대회 1,900만 달러보다 3배 이상 높은 현장 계약이 이뤄졌다.

또한 2만150건의 기업미팅을 통해 수출 상담금액만도 6억3,5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역대 대회 최고 수치로 확인됐다. 직전 대회의 경우 1만7,000건의 기업미팅이 이뤄진 바 있다.

이같은 큰 성과를 거둔 것은 전북자치도가 지난 5월부터 해외 바이어와 도내 기업간 1:1 매칭을 추진한 결과로, 총 500개 기업을 사전 발굴해 상품설명서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대응해

왔기에 가능했다.

도는 3일간의 실적에 그치지 않고 참가 기업들의 상담 실적이 실질적인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유치지원실장의 총괄 관리하고 관련 부서(기업애로해소과·일자리민생경제과), 관련 유관기관(경제통상진흥원·무역협회·무역보험공사·코트라·전주상공회의소)과 함께 지속적인 해외마케팅과 글로벌 교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인비즈니스대회가 기업 위주의 대형 박람회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전시관을 찾은 일반 관람객들의 수가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구름인파가 몰렸다.

대회 주최 측이 밝힌 결과보고서에서 지난 애너하임 대회 총 관람객 수가 7,825명, 직전 국내대회였던 울산대회 관람객은 2,046명으로 집계된 것과는 크게 비교되며 대중적 관심을 이끈 대회로 평가받기에 충분했다.



24일 오후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폐막식이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우병기 전주시장, 양오봉 전북대학교 총장, 변철환 재외동포청 차장 등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수출계약·상당실적 등 모든 기록 갈아치워
전북자치도, 꼼꼼한 준비로 역대급 결과 거둬
도내 기업들,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과 교류
한인 경제인들도 전북 발전 가능성에 '긍정적'**

▲재외 한인경제인들도 전북의 혁신적 변화에 이목 집중

전 세계에서 모인 한인 비즈니스 리더들은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내에서 가장 혁신적으로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새로운 기회의 땅 새만금을 찾아 산단 조성 현황과 입주 조건, 보조금 및 인센티브 등 전반에 대해 살펴봤으며, 23일에는 국내 유일의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

문해 전북의 산업적 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전북이 지닌 성장 가능성과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추진 중인 혁신적인 정책들은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리더들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변화가 이들의 비즈니스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을 맞은 전북은 '대한민국 테크노베드'를 자처하며 스마트 농업, 그린 에너지, 첨단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

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비즈니스 시장에서 한인 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전북은 국제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대회에서 논의된 각종 협력 방안이 실제 비즈니스로 이어지며 경제적 효과를 낼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에서 열린 이번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한인 기업인들이 글로벌 무대에서 전북의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국제적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세계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외교네트워크 확장

도, 한인비즈기간 동안 주한 외교사절단 초청 스타트업 현황 등 소개

전북특별자치도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간 주한 외교사절단 30여 명을 초청해 도내 주요 산업과 스타트업 현황을 소개하며, 공공외교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도내 기업과 외국 대사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글로벌 협력 기회를 모색하고, 지역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행사는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진행됐다. 23일 외교사절단은 김재 스타트업 혁신밸리를 방문해 전북의 첨단 농업 기술을 체험했고, 이어 전주에서 전통 공예 체험을 즐기며 지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24일에는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 전시관을 둘러보고, 전북 내 24개 기업과의 스타트업 네트워킹 세미나가 진행됐다.

특히, 주한 외교사절단과 전북 스타트업 간의 네트워킹 세미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벨기에, 칠레, 이란, 케냐,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각각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과 경제·투자 환경을 소개했으며, 2부에서는 전북 스타트업의 성공 사례가 발표됐다. 한복 브랜드 '리슬(LEESLE)'의 황이슬 대표는 한복을 글로벌 패션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시킨 경험을 공유했다. /이만호 기자

올해 국식클 산학연 지원 권역단은 '1곳'

기업 지원 축소 우려... 민주 이원택 의원 "국비지원 회복, 전문인력 양성 등 시급"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 실적이 급감해 사업시작 3년 만에 폐지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군산·김제·부안)이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실적은 2024년 현재 1개 권역 20개 기업지원으로 2023년 5개 권역 90개 기업지원 대비 실적 이 5분의 1가량으로 급감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21년부터 지역 식품기업의 애로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식품산업의 지역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권역별 산학연 기술지원'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초기 강원, 전북, 충남, 경상 4개 권역 35개 사 기업지원에서 2023년에는 경기, 강원, 경상, 전라, 충청 5개 권역 90개사 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관련 사업예산이 급감하면서 올해 1개 권역만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예산은 2021년 13억2,300만원에서 2024년 6억 1,200만원으로 절반이



하로 감소했으며,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5억7,600만원이 반영되었다. 이뿐 아니라 기업지원 관련 사업비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다.

'투자유치 및 홍보강화' 분야의 경우 2021년 18억2,000만원에서 2025년 정부안 6억9,800만원으로 61.6% 감소했으며, '기업 기술지원' 분야 역시 2021년 47억7,000만원에서 2025년 39억 400만원으로 18.1% 감소했다.

K푸드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유일 식품 관련 국가산업단지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각종 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식품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국내 보완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가산업단지, 2017년 부지 조성이 완료된 후 2027년까지 입주

기업 매출액 2조 1천억원을 목표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준공 기업의 고용 인원은 2021년 1,175명에서 2023년 1,820명으로 35.4% 증가했으며, 매출 역시 2,653억원에서 6,060억원으로 128% 증가했다.

반면 2024년 10월 기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입주면적은 전체 공고면적 137만6,000㎡의 74.1%인 110만 6,000㎡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분양률이 70%대에서 정체되어있다. 특히, 연구시설 부지에는 입주한 기업이 한 곳도 없으며, 국외기업의 입주도 2018년 1곳이 전부다. 신규 분양 기업은 2021년 23개사에서 2023년 11개사로 감소하고 이달 기업은 같은 기간 5개사에서 12개사로 증가하는 등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글로벌 푸드 열풍을 타고 식품산업 활성화의 기대가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 지원 사업비 회복과 전문 인력 유치, 생활 인프라 개선을 통해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국가산업단지로서의 역할을 더욱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근거 마련

국주영은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전주1·더불어민주당)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주 의원에 따르면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 11월 기준 6만5,119명으로 이들 중 외국인 노동자는 1만706명으로 전체 외국인 주민의 1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보다 1,24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주 의원은 "최근 산업현장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 산업과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내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다양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며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

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들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외국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내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률·노동·고용 상담 및 문화적응, 교육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sgcenergy.co.kr

추천 전주매일 창간

자원순환형 에너지가 만드는 지속 가능한 세상

Sustain Grow Change

SGC에너지는 고품질의 증기 및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친환경 종합에너지 기업**입니다.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가기 위해 바이오매스 에너지 확대, 탄소제로를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밸류 체인(Value Chain)을 구축하여 'Clean Energy'를 제공하는 **종합에너지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합니다.

ESG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Sustain) 성장(Grow)과 변화(Change)를 이뤘겠습니다.

SGC 에너지

SGC 이테크건설 SGC 송유선 SGC 그린파워 SGC 다목적발전 SGC 퍼트리스